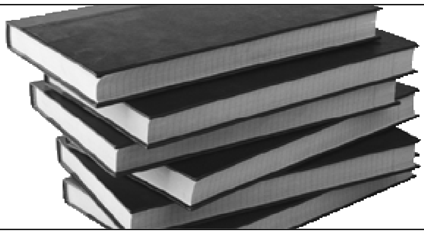

『책과 만나다』

수유연구실 + 연구공간 너머 지음, 그린비 발행, 2002

안 치 운 · 호서대 예술학부 교수 | 연극평론가

책읽기란 무엇일까?

요즘 내가 읽은 글 가운데 기억나는 것은 근대 일본 문학의 아버지였던 나쓰메 소세키가 한 말이다. “책은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우니까 읽으라는 것이다.” 행복한 책읽기가 있고, 고통스러운 책읽기가 있다는 것일까? 책읽기가 고통스럽단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삶의 다른 형식들, 불가해하고 복잡다단한 삶”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책이란 애옥살이와 같은 삶의 현실과 맞닿은 열린 문과 같다. 들어가면 뒤로 흘러나올 수 없는 문이다. 책은 물론 다종다양한 삶을 다루고 있다. 책읽기의 고통이란, 수많은 삶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읽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어릴 적 책읽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것은 어린 탓으로, 나 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삶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선을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책읽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책을 읽을수록 내 삶을 자각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의 삶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고통스럽지만, 더 많은 것을 사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만큼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책은 많은 이들이 책을 읽고 쓴 글들을 모은 문집이다. 여러 책을 읽은 독자이며, 동시에 읽은 책들에 대하여 글을 쓴 필자들에게 책은 마치 자신들의 친구와 같다. 짐작해보면 이 책의 저자들에게 책은 고독과 같은 친구이다. 떨어질 수 없는, 결코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는, 말을 거는 오래된 이웃이다. 무려 아흔 네 권의 책을 읽고 글을 쓴 이 책의 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책으로 말하다』에서 이들은 “이 책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든 책들에게 보내는 짧고도 긴 편지들이다. 아울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소박하게 선물받은, 책들에게 돌려주는 소박한 헌사이기도 하다”라고 고백한다. 또한 “한 권을 읽어도 목숨을 걸고 저자의 삶과 부딪칠 수 있는 담력을 키우고자 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 마지막은 “타인이 내 글을 읽어 줄 때의 고통을 짐작하기도 했고, 누군가가 내 글을 읽고 행복해 했을 때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고마움도 배웠다”는 깨달음이다.

이 책은 읽은 책들을 넷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일상의 축제 – 되기, 코뮨적 삶을 위하여”에서는 일상의 삶, 자본, 국가, 제도의 내부에서 그 바깥으로 가로지르는, 이른바 일상의 축제, 일상의 혁명을 꾀하는 책들에 관한 서평을 모았다.

둘째, “철학의 외부, 근대에 내재하는 외부를 위하여”에서는 안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철학, 그것을 긍정하는 철학에 관한 책들에 관한 글들로 채워져 있다.

셋째, “우리 신체에 새겨진 근대성 그리고 혁명”에서는 우리의 몸에 새겨진 근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책들, 도덕의 금기보다는 인간의 자유로운 욕망의 흐름에 관한 책들에 관한 글모음이다. 이 주제는 “한 시대의 철책을 뛰어넘은 광인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어진다.

마지막 주제 “고전과의 유쾌한 연애, 리딩 클래식”에서는 “저 오래된 책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일상의 출구를 발견”할 수 있는, 고전에 관한 글들을 모았다.